기출문제

1. 다음 중 (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 서류는 아직 (　　)를 받지 못 하였다 시위대와 경찰이 (　　)했다. 그 사람은 재산 (　　)혐의로 고발 당했다.

① 결재(決裁), 추돌(追突), 은둔(隱遁)
② 결재(決裁), 충돌(衝突), 은닉(隱匿)
③ 결제(決濟), 추돌(追突), 은둔(隱遁)
④ 결제(結濟), 충돌(衝突), 은닉(隱匿)

2. 다음 중 발음 과정에 나타난 음운 변동 규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신라[실라]　　㉡ 해돋이[해도지]

㉠	㉡
① 유음화	구개음화
② 구개음화	유음화
③ ㄴ 첨가	구개음화
④ ㄴ 첨가	ㄹ 탈락

3. 다음 중 지문과 입장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지문

① 기록함으로써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
② 한 번의 실수로 지나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③ 상과 벌에 대한 기록이 될 수 있다.
④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4. 다음 중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울산 - Ulsan
② 설악 - Seorak
③ 종로 - Jongno
③ 호법 – Hobeob

5. 다음 중 가전체 문학 작품과 의인화된 사물을 짝지은 것 중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국순전 - 술
② 공방전 - 엽전
③ 저생전 - 돼지
④ 정시자전 – 지팡이

6. 다음 중 음운의 개수가 가장 많은 단어를 고르시오.

① 소화기　　② 인화성
③ 안전모　　④ 방열복

7. 다음 보기 중 어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소녀가 할머니에게 선물을 드렸다. - '드렸다'는 주체 높임법이다.
② 선생님은 딸이 계시다. - '계시다'에서 '있으시다'로 바꾼다.
③ 기한이 되시면 맞춰 주세요. - '되시면'을 '되면'으로 바꾼다.
④ 저희 나라는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 '저희 나라'를 '우리나라'로 바꾼다.

8. 다음 보기를 읽고 설명이 가리키는 것을 고르시오.

[복원미흡] 지문

① 비석치기
② 연날리기
③ 고무줄놀이
④ 딱지치기

9. 지문 내용 중 밑줄 친 것을 수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복원미흡]

① 한해　　**② 바람**
③ 년초　　**④ 할 지**

10. 다음 보기 안에 밑줄 친 의미와 다른 한자성어를 고르시오.

지문의 밑줄은 재난은 발생한 뒤 수습하기가 어렵다는 내용

① 실마치구(失馬治廐)
② 연목구어(緣木求魚)
③ 망양보뢰(亡羊補牢)
④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이 문제는 소방사관학원에서 실제 응시 후 복원한 것으로, 문제의 저작권은 당 학원과 출제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다음 보기의 빈 칸에 알맞은 것은?

> 딕 들에 동난지이 사오. 져 쟝스야, 네 황후 긔 무서시라 웨ᄂᆞᆫ다, 사쟈.
> 外骨內肉(외골내육), 兩目(양목)이 上天(상천), 前行後行(전행후행), 小(소)아리 八足(팔족), 大(대)아리 二足(이족), 淸醬(청장) ᄋᆞ스슥ᄒᆞᄂᆞᆫ 동난지이 사오.
> 쟝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 ]젓이라 ᄒᆞ렴은

① 게 ② 거북이
③ 자라 ④ 문어

12. 수사 의문문이 아닌 것은?

① 이 고장 특산물이 무엇인가요?
② 내가 널 못 당할쏘냐?
③ 이 사무실 공기가 좀 탁하지 않니?
④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할 일이 없을쏘냐?

13. 다음 시를 읽고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 맞벌이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 일곱 달 된 아기엄마 구자명 씨는
> 출근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
> 그래 저 십 분은
> 간밤 아기에게 젖물린 시간이고
> 또 저 십 분은
>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 그래그래 저 십 분은
>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 잠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 아무도 모르게
> 죽음의 잠을 향하여
>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 -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씨'

①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리고 있다.
② 부조리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
③ 대상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④ 배경 묘사를 통해 화자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14. 다음 보기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千世(천 세) 우희 미리 定(정)ᄒᆞ샨 漢水(한수) 北(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ᄒᆞ샤 卜年(복년)이 ᄀᆞᆺ업스시니, 聖神(성신)이 니ᅀᅳ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ᄒᆞ샤ᅀᅡ,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ᄅᆞ쇼셔. 落水(낙수)예 山行(산행)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① '미리 定(정)ᄒᆞ샨'은 하늘이 미리 정했다는 내용이다.
②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자음과 모음이 사용되었다.
③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였다.
④ 산행은 '등산'이라는 의미이다.

15. 다음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푸른 산이 흰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거니……
> - 신석정 <들길에 서서>

①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②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유사성을 말하고 있다.
③ 어조 변화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④ 밝음과 어둠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소방사관학원에서 실제 응시 후 복원한 것으로, 문제의 저작권은 당 학원과 출제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다음을 읽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紅塵(홍진)에 뭇친 분네 이내 生涯(생애) 엇더ᄒᆞᆫ고. 녯 사ᄅᆞᆷ 風流(풍류)ᄅᆞᆯ 미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ᄒᆞᆫ 이 하건마ᄂᆞᆫ, 山林(산림)에 뭇쳐 이셔 至樂(지락)을 ᄆᆞᄅᆞᆯ 것가. 數間茅屋(수간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앏픠 두고,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예 風月主人(풍월 주인) 되어셔라. 엇그제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행화) 夕陽裏(석양리)예 퓌여 잇고, 綠楊芳草(녹양 방초)ᄂᆞᆫ 細雨中(세우중)에 프르도다. 칼로 ᄆᆞᆯ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헌ᄉᆞᄅᆞᆸ다. 수풀에 우ᄂᆞᆫ 새ᄂᆞᆫ 春氣(춘기)ᄅᆞᆯ 못내 계워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物我一體(물아 일체)어니, 興(흥)이야 다ᄅᆞᆯ소냐. 柴扉(시비)예 거러 보고, 亭子(정자)애 안자 보니, 逍遙吟詠(소요음영)ᄒᆞ야, 山日(산일)이寂寂(적적)ᄒᆞᆫᄃᆡ, 閑中眞味(한중진미)ᄅᆞᆯ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정극인 <상춘곡>

① (ㄱ) '홍진'과 '수간모옥'은 대조되는 뜻이다.
② (ㄴ) 지락에 대한 자부심을 설명하고 있다.
③ (ㄷ) 이내 생애는 화자의 지향대상이다.
④ (ㄹ) 녯사람의 생애를 감각적인 시어로 구체화하였다.

17. 다음 중 속담과 뜻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굽은 나무 선산 지킨다 - 쓸모 없는 것이 오히려 할 일을 한다.
② 못 먹는 버섯이 3월에 난다 - 좋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일찍 나돌아 다닌다.
③ 봄볕은 며느리가 맞게 하고 가을볕은 딸에게 맞게 한다 -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보다 더 예뻐한다.
④ 거문고 인 놈이 춤을 추면 칼 쓴 놈도 춤을 춘다 - 처지도 못 되는 이가 남이 하니까 덩달아 따라하며 웃음거리가 되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8~19).

전과자요 떠돌이 신세인 응칠은 추수 때에 송이 파적이나 하는 만무방이다. 깊은 산골 어느 가을날, 시장기를 느껴 송이를 먹던 응칠은 고기 생각이 나자 근처에 돌아다니는 닭을 잡아먹는다. 숲에서 나온 응칠은 성팔이를 만나 응오네 논의 벼를 도둑 맞았다는 말을 듣고 성팔을 의심한다. 응칠이도 5년 전에는 처자식이 있던 성실한 농군이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 한밤중에 도망을 나와 구걸로 연명하다가 아내의 제안으로 헤어진 뒤부터 절도와 도박 등으로 살아가다가 감옥까지 드나들게 되었다. 그러다가 동기간이 그리워 아우 응오네 동네로 들어오게 된 것이 한달 전이다. 응오는 순박하고 성실한 모범 농군이었지만,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장리쌀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고 도리어 빚만 늘어가게 되자. 올해는 벼를 베지 않고 있었다.

병을 앓아 송장 같은 아내에게 약을 달여 먹이던 응오는 응칠을 보자 아내를 위해 산치성 드릴 것을 의논해 온다. 이런 상황에서 베지도 않은 논의 벼를 도둑맞자 전과자인 자신이 도둑으로 몰릴 것을 예상한 응칠은 오늘밤 도둑을 잡은 후 마을 을 떠나가기로 결심 한다.

산길을 오르다 바위 굴 속에서 노름판을 발견한 응칠은 노름판에 잠시 끼었다가 서낭당 앞 돌에 앉아 덜덜 떨며 도둑을 잡기 위해 잡복한다. 닭이 세 홰를 울 때, 복면을 한 그림자가 나타나 벼를 훔치는 것을 보자, 응칠은 격투 끈에 도둑을 잡아 복면 을 벗기고 망연자실한다. 범인을 다름 아닌 응오였던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응칠은 황소를 훔지고자 응오를 달랬지만, 부질없다는 듯 형의 손을 뿌리 치고 달아나는 응오를 몽둥이질로 쓰러뜨린다. 응칠은 한숨을 쉬며 응오를 업고 고개를 내려온다.

- 김유정 <만무방>

18. 이 글에서 응오의 신분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① 소작농 ② 자작농
③ 지주 ④ 아전

19. 응오가 처한 상황으로 알맞은 속담을 고르시오

① 자는 범 코침 놓다
② 나간 놈 집 구석이다.
③ 가는 손님은 뒤꼭지도 예쁘다
④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20. 다음 자료를 읽고 조선시대 상속에 대해 알 수 없는 내용은?

[복원미흡] 조선시대 상속에 대한 지문

① 조선에는 재산 내용에 관한 기본 법전이 있었다.
② 고려시대에는 재산이 많은 여성이 있었다.
③ 첩의 자식에게도 공평하게 재산 분배를 하였다.
④ 재산 분배에 있어 유일한 차별은 장례를 지내는 자녀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는 소방사관학원에서 실제 응시 후 복원한 것으로, 문제의 저작권은 당 학원과 출제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